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지향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학부(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제1833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4월 6일 (음력 3월 11일) 월요일

北 로켓 발사 강행

정부·미군 "위성 궤도진입은 실패"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로켓에 실린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군은 실패했다고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2·4·5면〉

북한은 5일 오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여부와 관련, "(발사체가)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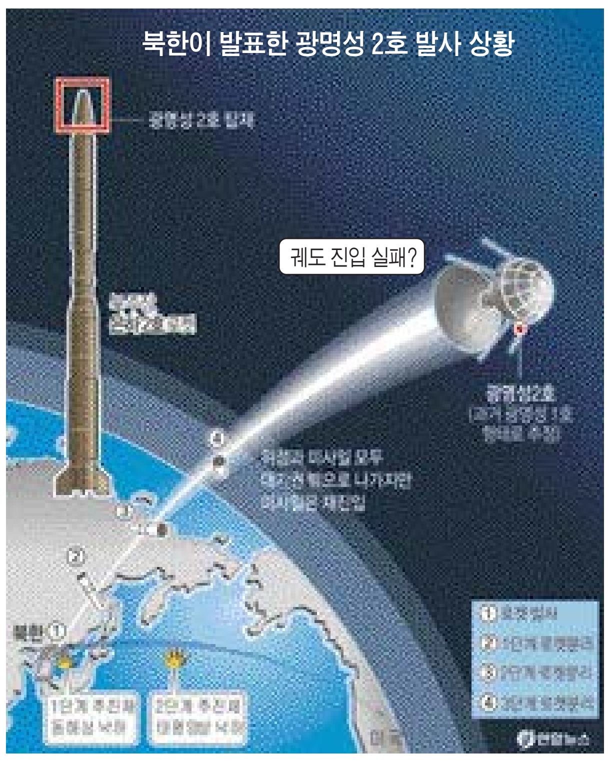
미군도 5일 북한 로켓의 탑재물(pay-load)이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며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는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두 사령부는 또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어떤 파편도 일본에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3시28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 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3단계로 된 은하 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2초만인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30분15초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해, 북한이 밝힌 발사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며, 심지어 정부가 밝힌 발사시점은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 시점보다도 늦은 것이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 6일 새벽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즉각적인 제재 움직임에 착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 데 반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을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성격 규정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움직임은 물론 향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일본이 로켓 발사 직후 안보리 소집을 전격 요청하고 나섰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미·일 등이 추진해온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이나 1718호의 즉각적인 이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는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요구와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한·미·일은 탑재한 장거리 로켓도 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U대회 기원 발차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위한 '제1회 외국인 유학생 한마당 축제' 가 지난 4일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과학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격파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2천여명이 참가, U대회 개최를 염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실사의 날' 준비된 광주 보여준다

실사단 오늘 입국…李대통령 만남때 정부 지원의지 전달

2015 U대회 광주에서

"준비된 도시, 대회 개최 최적의 도시 광주에 대한 확신을 심겠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개최 후보지 실사단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본격 실사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스테판 버그 단장 등 실사단과의 만남에서 범 정부차원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여 실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사단은 이날 오후 광주 도착 후 곧바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의 1차 프레젠테이션(PT)을 받는 등 9일까지 3박4일 동안 광주의 스포츠 인프라 등 17개 주요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실사는 대만 타이페이(지난 3일~5일)에 이은 두번째로 광주시는 U대회 정식 종목을 치를 17개 경기장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여건과 국제적인 스포츠 인프라, 범 시민적 유치열기 등 차별화된 도시 인프라를 내세워 실사위원들을 사로잡는다는 복안이다.

시는 월드컵, 전국체전으로 검증받은 대회 운영 노하우와 정부의 지원의지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재정력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광주 전세기 운영을 통한 빠르고 간편한 입·출국, 통관 절차,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경험도 강조된다.

시는 실사 이틀째인 7일 실사단에게 광주·전남 15개 경기장의 강점을 소개한 뒤 월드컵 경기장 기념식수,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주최하는 오찬에서 유치 열기를 전달한다.

박광태 2015U대회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의화 유치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식 환영만찬을 개최한 데 이어 U대회 유치 기원 열린음악회(전남대종합운동장)를 마련, 시민들의 열정을 선보인다.

시는 실사 마지막날인 8일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실사단 합동회의를 갖고 광주에 대한 최종 확신을 심을 계획이다. 실사단은 이날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대회 개최 역량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U대회 유치위원회는 지난 4일 실사단 이동 경로, 경기장 시설, 프레젠테이션 등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를 최종 점검하는 등 '감동 실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와 차별화된 광주의 스포츠 인프라 등 강점을 최대한 부각해 U대회 광주 유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가
바로 대한민국 실버타운의 역사입니다.
주거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브랜드 입니다.